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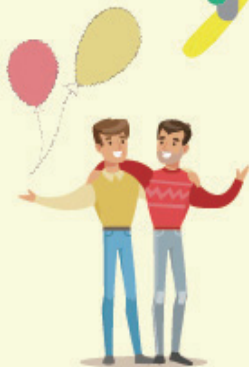
젊은이,
하느님의 기쁨
교회의 희망

2022.11.19.토(그리스도왕 대축일의 전날), 남천성당



Diocese
Busan
Youth Day

대상,
중고등부 학생, 교리교사, 청년, 부모 그리고
젊은이를 사랑하는 이



고구려문화의 날
소재 영상



축제 내용

식사장소 개방

11:00~13:30

(남천성당 식당)
(푸른나무 식당)

식전행사

12:00~14:30

프린지
페스티벌 / 레드카펫

14:30~15:00

레크레이션

본행사

15:00~17:00

Youth Stories
(주교님과의 만남)

미사

17:00~18:30

미사와 성체현시



점
은
이
의
남

부산교구평협은

교구점은이

여러분의

“거드저작”
입니다!



천주교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새롭게 고맙게 기쁘게

어느 날 제가 수녀원에서
하얀 찔레꽃을 보며 쓴
'사랑한다는 말은' 이란 시 노래를
성당에서 자주 들은 일이 있으실
하느님의 기쁨, 교회의 희망 그리고
부산교구의 보물인 젊은이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
푸른 하늘 우러러 보며
출렁이는 마음으로
파도 빛 영성을 키우는 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느님의 기쁨이며 교회의 희망인 젊은이 여러분!
이 시대의 절망을 희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줄
우리의 희망이며 등대인 젊은이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더 빛나는 선물인 젊은이 여러분!

사는 일에 바쁜 것을 핑계로
그동안 제대로 살피주지 못한
우리의 무관심과 안일함을 용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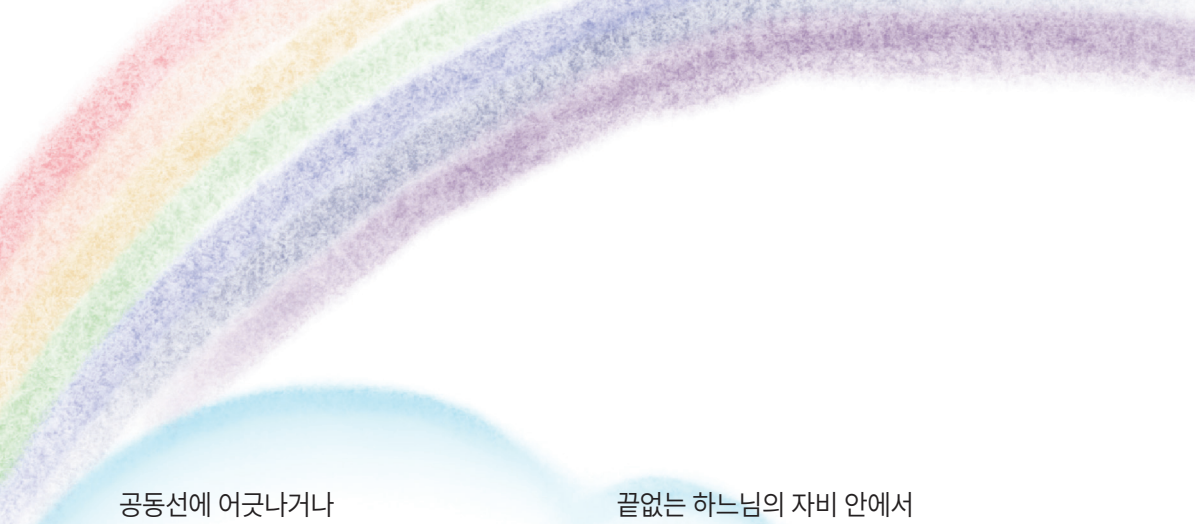
여러분의 목마름을 적셔주지 못하고
이해는커녕 비현실적인 잔소리만
많이 했던 지난 시간들도 미안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푸른 사도직
사랑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외면하는 이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고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예수님을 향한 우선적인
사랑의 선택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이신 교회를
어떠한 이유로든 쉽게 떠나진 말아주세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한껏 헌신 봉사하는 사랑의 용기로
충실한 애덕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공동선에 어긋나거나
생명수호에 반대되는 일이 생기면 서슴없이
달려가
바로잡도록 애쓰는 생명지킴이
정의의 사도가 되어주세요 .

언제나 맑고 밝고 선한 첫 마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볼 줄 아는
그래서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기도의 순례자가 되어주세요 .

우리 부산교구의 주보이신
'바다의 별' 성모님께
아름다운 여러분을 봉헌합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며
바닷길을 걸어오는 제자들에게
다정히 말씀하시던 예수님께
오늘도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

끝없는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은총의 배로 항해하는 교회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고맙게 기쁘게

신앙의 별을 찾아 행복한 우리가
늪지 않는 청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산처럼 품어 안고
바다처럼 열린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성실과 인내의 일상도를 실습하며
함께 행복하기로 해요 . 우리 !

새롭게 고맙게 기쁘게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요 .
'하느님의 지금' 으로
더 새롭게 더 고맙게 더 기쁘게 !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

젊은이,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희망

Diocese Busan Youth Day, BYD)



찬미 예수님 ~
부산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교구에는 해마다 교리교사의 날, 참행복 축제, 그리고 3년마다 청소년 신앙 축제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 교황청은 각 교구마다 교구 젊은이의 날을 거행하는 사목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응답하여 우리 교구도 ‘교구 젊은이의 날’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구 젊은이의 날에는 중고등부 학생, 교리교사, 청년, 부모, 그리고 젊은이를 사랑하는 분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다양한 연령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기쁨, 그리고 교회를 형성해가는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젊은이의 날은 ‘젊은이, 하나님의

기쁨 교회 희망’이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젊은이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저마다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젊은이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공통된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젊은이의 날을 통하여 공통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젊은이들이 다른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살아가고자 초대하는 젊은이 사도직을 실현하면, 파견된 제자들의 기쁨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이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나 혼자 결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B/U/S/A/N/C/H/O/I/C/E



서로 알고,

사랑하고,

봉사하자!



선택 참가 문의

박지원(세레자 요한) 010.8029.8038

젊은이의 날에서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의 기쁨을, 맥 풀린 낫 대신 축제의 웃을 입혀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체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젊은이들이 함께 모이는 일들이 적어져 함께 모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젊은이 공동체 안에 세대별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어 하나의 주제로 풀어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이 함께 모인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구 젊은이의 날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기쁨을 나누고, 성장해 가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2022년 청소년 주일에 발표된 교구장 담화문에서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신앙

적·사회적 어려움이 그들의 절규와도 같이 들린다고 토로 하였고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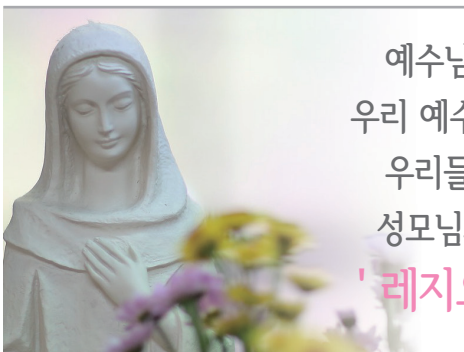
교회 모든 분야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성직자, 수도자, 부모, 교리 교사와 또래친구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청소년사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책임자로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저의 호소에 맞갖도록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젊은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를 통한 영적인 지지를 드러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젊은이들을 위한 영적지지모임인 'Prayer' 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젊은이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구 젊은이의 날
소개 (주교님)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하는
'레지오 마리아'



우리의 사랑관이신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치료(영적돌봄)

부산성모병원



- 부산성모병원의 뿌리는 성분도 병원입니다.
- 지역사회의 중심에 부산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소아전문진료센터



정형외과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활의학과(소아·성인)



장애친화검진기관



수면다원검사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부산성모병원은 현재 26개 진료과와 전문진료센터를 비롯한 400병상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친절한 병원,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병원으로써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 ◆만성폐쇄성폐질환 5년 연속 1등급
- ◆마취 적정성 1등급
-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3회 연속 1등급
- ◆테렘 4회 연속 1등급
- ◆수혈 1등급
- ◆약제급여 1등급





교구 젊은이의 날
안내 영상



PRAYER: 젊은이를 위한 영적지지 모임

| 목적 | 젊은이들의 신앙 성장, 교구 젊은이의 날을 위한 영적지지 | 대상 | 젊은이를 사랑하는 교구 공동체 구성원 모두(젊은이 포함)



젊은이를 위한 기도 (2022년 8월 2일 교구 인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를 위해
저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며 교회의 희망인 젊은이가
잃어버린 신앙의 감각을 되찾아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와 지혜를 청하나이다.

그러하여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매일 뿌리내리고 꽃피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을 양육하신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의 젊은이를 어머니의 품에 맡기오니
그들이 기쁨과 희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교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이 사명에 협력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젊은이를 위한
영적지지 모임 회원가입



젊은이를 위한
기도한 내용 보내기

영적지지 방법

개인적으로

1.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지향 묵상
2. 묵주기도 5단
3. 성체조배 혹은 개인기도
4. 미사 봉헌
5. 젊은이를 위한 기도

본당에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주일미사 전이나 후로
묵주기도 1단 바치기

기도 모임

8/13(토)부터 매주 토요일 15:00-17:30 푸른나무 경당

15:00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지향 묵상

15:30 묵주의 기도 16:30 미사와 성체현시

★젊은이의 날(11월19일) 이후에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젊은이를 위한 미사' 봉헌★

기도 모임 중 주일미사나 이후의 '젊은이를 위한 미사'에서 젊은이들을 위해 청하는 미사 지향은 예물을 받지않고 봉헌합니다.

젊은이,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희망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Diocese* Busan Youth Day, BYD)



PRAYER: 젊은이를 위한 영적지지 모임

I. 목적

2022년 청소년 주일에 발표된 교구장 담화문에서 손삼석 요셉 주교님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신앙적 사회적 어려움이 그들의 절규와도 같이 들린다고 토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다.

"교회 모든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성직자, 수도자, 부모, 교리 교사와 또래친구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청소년 사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책임자로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주교님의 호소에 맞갖도록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젊은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를 통한 영적 지지를 드러내려고 한다. 이러한 지향을 갖는 이들은 자유롭게 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모임의 회원으로는 신청할 수 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한 영적 지지 모임인 Prayer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젊은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지지
2. 교구 젊은이의 날(22.11.19, 토)의 준비 과정을 위한 영적지지
3. 교구 젊은이의 날 대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회 시간에 기도하는 영적지지
4. 교구 젊은이의 날 이후 월별로 '젊은이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며 영적지지를 지속한다.
5. 기도 모임 중 주일미사나 이후의 '젊은이를 위한 미사'에서 젊은이들이 청하는 미사 지향은 예물을 받지 않고 봉헌한다.

II. 대상

젊은이를 사랑하는 교구 공동체 구성원 모두 (젊은이 포함)

특별히,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그리고 신심단체 (레지아,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등)의 회원 그리고 수도회에서 젊은이를 담당하고 있는 이

III. 기간

1. 2022년 8월 11일 ~ 11월 19일
2. 젊은이의 날 (11월 19일) 이후에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

IV. 영적지지 방법

개인적으로

1.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지향 묵상
2. 목주기도 5단
3. 성체조배 혹은 개인기도
4. 미사 봉헌
5. 젊은이를 위한 기도

본당에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주일미사 전이나 후로 목주기도 1단 바치기

기도 모임

8/13(토)부터 매주 토요일 15:00-17:30 푸른나무 경당

15:00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지향 묵상

15:30 목주의 기도 16:30 미사와 성체현시

★젊은이의 날(11월19일) 이후에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젊은이를 위한 미사' 봉헌★

V. 홍보

1. 젊은이를 위한 영적지지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이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후 → 밴드가입 안내 문자가 발송 → 밴드가입)

회원가입 →



<https://band.us/n/aea974c1g0ibe>

2. 청소년사목국에서 매일 제공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지향을 SNS 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의 SNS 에서 '친구 추가' 또는 '팔로우' 를해주세요.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youth_busa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uthbusan>

트위터

https://twitter.com/youth_busan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lJxmTs

3. 기도한 내용을 SNS 를 통해 청소년사목국으로 보내면 , 청소년사목국은 한 주간의 기도 다발을 종합하여 매주 기도 모임 때 SNS 를 통해 게시합니다.

기도한 내용
보내기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

4. 기도 모임 때 거행되는 미사에 젊은이를 위해 미사지향을 넣을 경우 미사예물 없이 봉헌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희망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 (Diocese Busan Youth Day, BYD)

식잔행사

"프린지 페스티벌"

fringe, 가장자리,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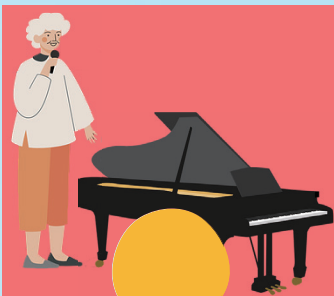
프린지 페스티벌은 정형화 되어있지 않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축제 정보

- 일시 : 2022년 11월 19일 (토) 12:00 ~ 14:30
- 장소 : 남천성당 일대
- 대상 :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 참석자 모두

누구나 참여하는
오픈 스테이지,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이 진행되는 공간



수도회·청년 신심단체 소개,
포토존,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 공간



무대에서 자신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

[사전 신청]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간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 신청하기



'레드카펫'이 YOUTUBE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극진한 환영과 영접의 뜻, 온전 자체로 빛나는 젊은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젊은이,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희망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 (Diocese Busan Youth Day, BYD)

식전행사 "프린지 페스티벌"

fringe, 가장자리, 주변

프린지 페스티벌은 1947년 영국 에든버러에서 시작된 축제입니다.

원래는 정형화된 축제였으나 초청받지 못한 단체가 오히려 주목받게 되면서

프린지(fringe, 가장자리, 주변) 페스티벌이 되었습니다.

프린지 페스티벌은 참가자들과 공연장이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페스티벌입니다.

운영하는 주체는 정보제공과 홍보만을 도와주고 공연과 관련된

어떠한 간섭이나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페스티벌은 참가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함으로써 **문화, 예술의 유연성과 가치를 증대하는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프린지 페스티벌은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참가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참가자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스티벌 안에서 소극적이거나 방관하게 된다면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물론 형식도, 제한도, 기준도 없는 '누구나'를 위한 축제라는 것이

낮설게 다가올 수 있지만, 젊음과 문화 예술의 만남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더 큰 가치와 힘으로

다양성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축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 안의 우리 역시 다양한 모습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전례와 성사 그리고 교도권의 법과

제도는 서로의 다른 모습을 통한 일치를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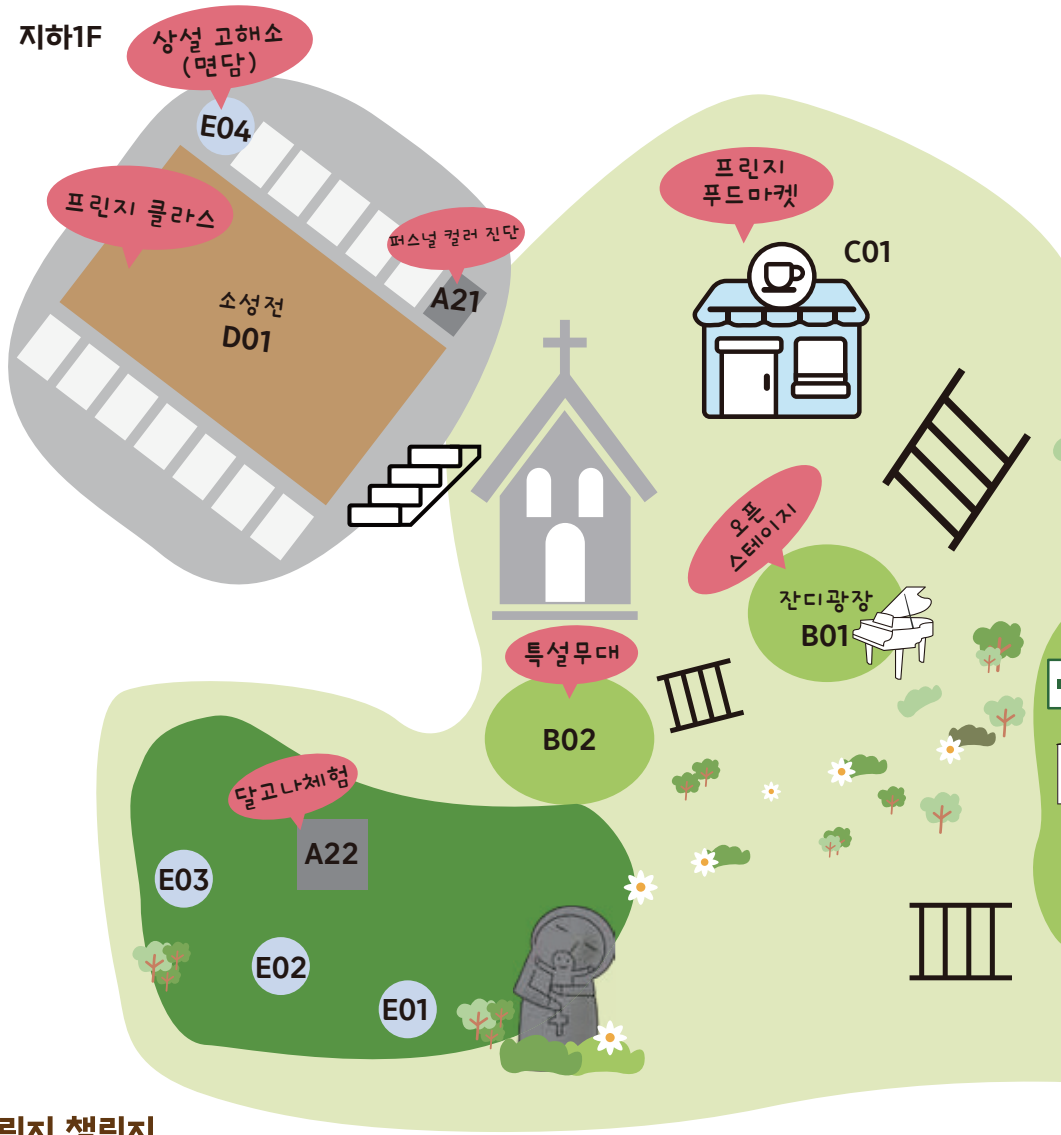
이유는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젊음은 그 다양한 모습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하며, 일치를 이끌어내는 뚜렷한 힘을 만들어 냅니다. 이것은 마치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져 하나가 되는 무지개처럼 이 프린지 페스티벌 역시 **서로를 통해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로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지하1F



프린지 챌린지

- A01~A22 부스체험
- Z01 메인부스
- Z02 희망·기쁨나무
- E01~E04 상설 고향소

프린지 푸드마켓

- C01 에덴카페

프린지 스테이지

- B01 오픈스테이지
- B02 특설무대공연

프린지 클래스

- D01 부모·성인을 위한 강연



A01. 바오로딸수녀회

A02.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A03.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A04. 한국외방선교수녀회

A17. 노틀담수녀회

A18. 프라도여성재속회

A19.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A20. 전교가르멜수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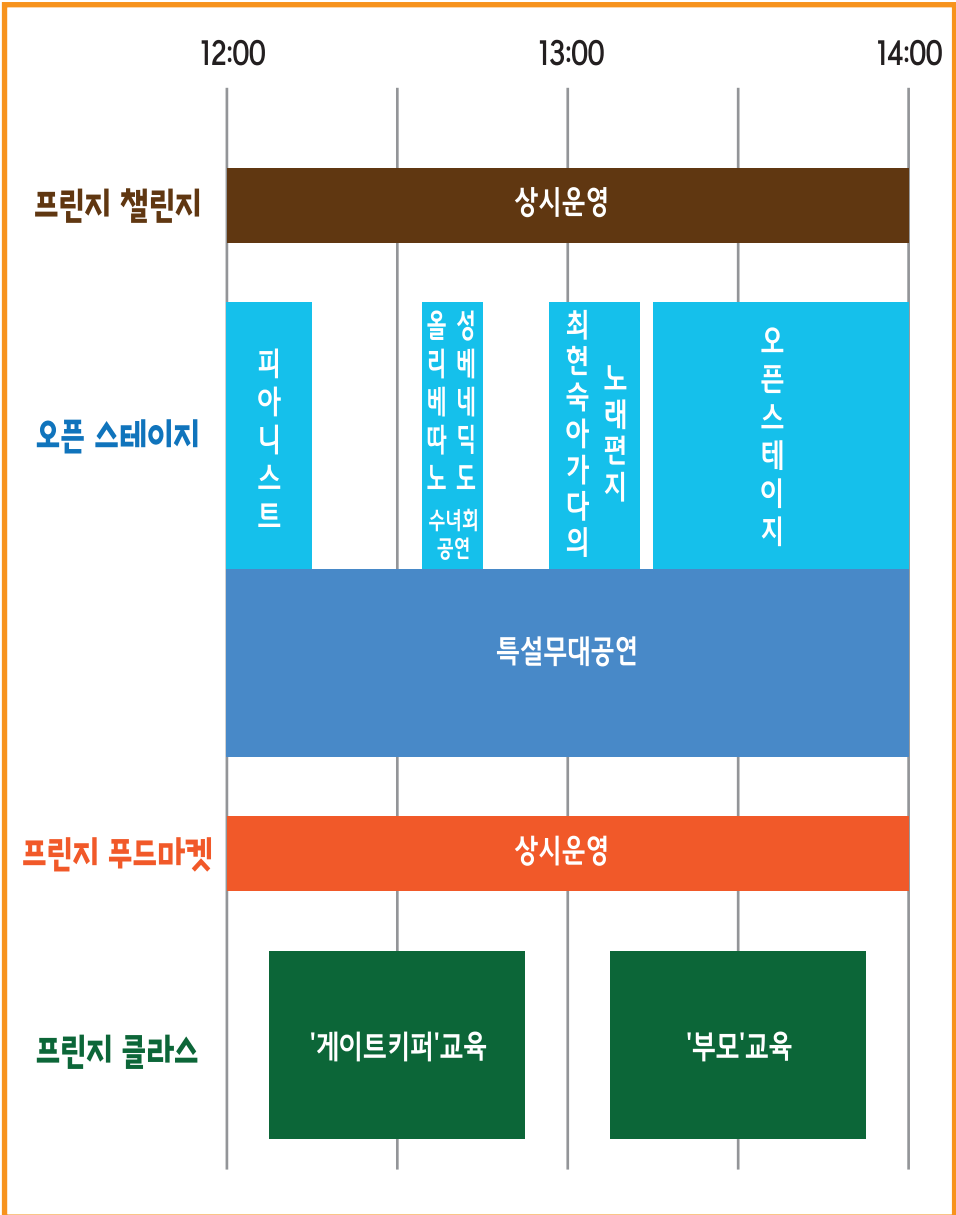
A05. 평신도사도직협의회

A06. 젊은이성령쇄신봉사회

A07. 부산선택

A08. ARCA청년성서모임

페스티벌 일정



※페스티벌 일정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린지 스테이지

오픈 스테이지



12:00~12:15

피아니스트 - 김유진 세실리아 (부산가대, 창원대, 창신대 출강교수,
부산평방 프로그램진행자 등)

12:20~12:40

Open Stage

12:40~12:50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공연

12:55~13:25

최현숙 아가다의 노래편지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외 다수)

13:30~13:35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공연

13:40~14:00

Open Stage

젊음의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노래와 춤의 무대



특설 무대

- 장소 : 지하1층 출입문 앞
- 시간 : 12:00~14:00까지
- 참여대상과 방법 : 참여자 현장 접수
(누구나)
- 특별게스트 : 이재석(안드레아)신부의
특별공연

가장 특별한 끼를 발산한
단1명에게 '아이패드' 선물
(이외에도 참여자 전원
특별한 선물 증정)



프린지 푸드마켓

12:00~14:00 상시운영



프린지 클래스

● 12:10~12:50

생명 지킴이 '게이트 키퍼' 교육

손애경 마리잔느 수녀 예수성심전교수녀회

● 13:10~13:50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올바른 태도'

김지영 마틸다

(재) 부산가톨릭청소년회 청소년 상담소 소장

'레드카펫'



레드카펫은 공식 행사에서 유명 인사나 귀빈을 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맨땅을 밟지 않게 하겠다는 **극진한 환영과 영접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오래전부터 염색 공장에서 가장 비싼 색으로 왕실과 귀족들이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했었던 색깔입니다.



교구 젊은이의 날 행사를 하기 전, 교리교사 권역별 연수에 간단한 형식으로 레드카펫을 깔고 연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오는 교사들을 맞이하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사들을 맞이하는 청소년사목국 입장에서는 리허설에 가까운 약소한 형식이었고, 레드카펫을 접한

교사들은 낯설고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 누군가를 기쁘게 맞이하며 대접한다는 것은 맞이하는 사람과 참석하는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구 젊은이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환영하며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레드카펫을 하고자 합니다. 평상시 본당과 지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대접하는 봉사의 직무를 묵묵히 충실히 해왔던 젊은이들에게 교구 젊은이의 날을 통해, 존재자체로 대접받는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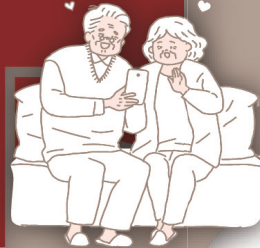
1340 분경 본당 별로 모여 1345 분부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성전으로 입장해 주세요. 입장도중 인터뷰가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제단과 주교님의 환대가 있습니다. 신부님들은 1340 까지 성전으로 모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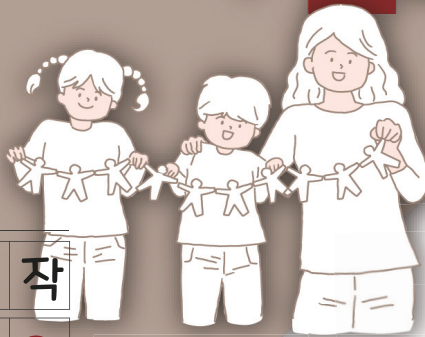


천주교부산교구 사회사목국
로사리오 카리타스

로사리오 카리타스는
젊은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www.rscaritas.com



나눔에
대한
우리들
이야기



나눔의 시작

은로사리오

카리타스와

함께...



2022 Youth' Stories

하느님의 기쁨과 교회의 희망

2022년 11월 19일(토) 15:00~17:00

대 상 ▶ 청년, 교리교사, 부모, 중고등학생

장 소 ▶ 남천성당 성전

문 의 ▶ 051 - 629 - 8747



젊은이,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희망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Diocese* Busan Youth Day, BYD)

2022 Youth Stories

올해 초 부산교구에서는 '시노달리타스'가 있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함께 길을 간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 말로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지는 세계주교 시노드를 준비하면서 가톨릭교회를 이루는 전 세계 모든 구성원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함께 신앙 여정을 걸어가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지난 청소년 주일을 맞으면서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님께서서는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드는 젊은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시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젊은이를 위한 일에 함께 뛰어들기를 바라셨습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처럼 더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으며 주교님께서도 모두가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시며 경청하고자 하십니다.

올해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에 있을 Youth Stories 프로그램은 이렇게 우리가 젊은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젊은이,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희망'이라는 젊은이의 날의 주제를 중심으로 중고등부 학생, 교리교사, 청년, 학부모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에서는 꿈과 희망을 주제로 인터뷰한 학생들의 영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궁금한 이야기 Youth'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교리교사 그룹에서는 '교리교사!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과거 교리교사들의 이야기와 현재 교리교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주일학교의 미래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나누고자 합니다. 또 더불어서 2021, 2022 새삼 수료식도 함께 하면서 축하와 격려를 나누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실제로 겪은 사연들을 바탕으로 기쁨과 희망의 사연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토크쇼를, 학부모들은 자녀와 부모와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앙케트쇼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 특별 게스트로 서울에서 청년들을 위한 식당 '청년 문간' 운영으로 유명한 이문수 신부님을 모시고 그동안 만났던 청년들의 이야기와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도 함께 청해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정말 다양한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Youth Stories 토크쇼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과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유스 스토리
안내영상



2021-22 새샘학교

수료자 및 근속교사 명단

★ 20년(근속자 1명)

본당	성명	세례명
웅상	김명화	소피아

★ 15년(근속자 1명)

본당	성명	세례명
우동	이인경	마리아

★ 10년(근속자 9명)

본당	성명	세례명
금정	김지영	울리엠타
남천	최은진	미카엘라
덕계	박수영	마리아
병영	하현주	헬레나
양정	김경민	미카엘라

본당	성명	세례명
정관	유민선	파비올라
중앙	전재일	미카엘
광안	정진희	테레사
장유	공선아	그라시아

★ 5년(근속자 39명)

본당	성명	세례명
광안	이보라	보나
남산	금아영	스테파니아
남천	김민성	프란치스코
남천	정유선	로사
덕계	김태영	라파엘
방어진	백예람	아네스
사직대건	김기만	대건안드레아
성가정	문인숙	첼리나
성가정	신남숙	엘리사벳
송도	김윤정	레지나
송도	김윤지	로사
송도	정용선	레지나
송도	조유빈	요세피나
우정	김민정	요안나
우정	이진선	보나
이기대	이은지	울리아
전하	김나영	레지나
정관	박보영	보나
호계	권세호	안토니오
호계	이현미	안젤라

본당	성명	세례명
화명	홍민정	아가다
남산	최우진	안토니오
남천	이용준	사도요한
안락	김민재	로마노
동래	오재훈	마르코
사직대건	박지현	아네스
이기대	송현정	아네스
임호	박국희	베드로
주례	박경인	울리안나
중앙	류태윤	임마누엘
야음	이정은	아네스
하단	황근영	바울라
금정	이상수	안셀모
성바오로	서홍주	카타리나
용호	조성인	세실리아
아미	김현주	소피아
아미	송은솔	젬마
해운대	이순희	미카엘라
우동	김효진	마리아



★ 2021 새샘학교 수료자 명단

본당	성명	세례명
망미	이선화	스텔라
민락	피은정	미카엘라
용호	원혜진	카타리나
이기대	강진희	크리스티나
이기대	박효진	요세피나
이기대	정후선	글라라
구봉	장소연	미카엘라
구봉	최미주	보나
중앙	함희연	엔크라시아
다대	라금비	가브리엘라
명지	유예은	데레사
송도	박어진	베드로
하단	정수화	마리아
하단	진유영	소피아
가야	김지은	엘리사벳
가야	이은세	세레나
개금	민진화	로즈마리
개금	허정윤	로사
당감	이믿음	수산나
양정	양혜림	카타리나
주례	주한준	플로렌시오
남산	강지원	미카엘
남산	박채빈	라파엘라
남산	이주호	세례자요한
사직	한지아	루시아

본당	성명	세례명
안락	채민건	레지나
기장	홍은주	마르카리타 마리아
반여	조은미	베네딕다
해운대	민성혜	소피아
양산	최민근	요셉
화명	김릉	사도요한
화명	박경하	아네스
밀양	박성심	요세파
밀양	손정연	마리아
삼계	이예준	미카엘
삼계	이준	비오
울하	박설혜	이레네
울하	유호성	로사
울하	최희영	베르다
장유대청	김진경	젬마
장유대청	정혜영	글로리아
병영	류근우	미카엘
병영	서혜린	글로리아
성바오로	곽영은	엘리사벳
성바오로	구선미	크리스티나
성바오로	박보영	레지나
전하	정승복	마네킬다
언양 성야고보	이경민	데레사
월평	이슬찬	마르코

수료자 및 근속교사 명단

★ 2022 새샘학교 수료자 명단 ★

본당	성명	세례명	본당	성명	세례명
광안	이상현	안드레아	수정마을	박수현	사비나
광안	이지수	다니엘라	수정마을	박은빈	헬레나
금정	이설화	루시아	수정마을	조수민	베네딕다
남산	김지은	아스테리아	수정마을	차지우	미카엘라
남산	백수민	스텔라	야음	김찬혁	베네딕토
남산	최수진	릴리안	야음	박영미	요안나
다대	이화선	라파엘라	야음	오미희	임마누엘라
대연	김경연	아가다	야음	정경선	유체칠리아
대연	김민성	안토니오	양산	이자영	마리안나
대연	한동균	세레자 요한	우동	이윤지	안젤라
망미	박준우	안드레아	우동	장유진	마르타
망미	이하리	엘리사벳	월평	권기연	모니카
명지 신도시	정미배	효주아네스	이기대	도규원	미카엘라
몰운대	김나영	유스티나	장림	최재현	사도요한
무거	박미경	데레사	정관	강민정	요한나
방어진	황은혜	보나	정관	안경아	마르타
범서	이수현	레오나	좌동	이유나	엘리스
범서	홍정은	엘리사벳	주례	윤서현	세실리아
범일	허정인	에스텔	천곡	김정미	모니카
병영	김성훈	사도요한	토현	손채영	미카엘라
봉래	김하람	토마스 아퀴나스	토현	전민규	바오로
사직	김유민	라파엘라	호계	조진숙	크리스티나
사직	박한별	마리아막달레나	호계	최준영	비오
서대신	고병석	다니엘	중앙	홍혜원	글라라
서대신	오승예	아가다	화명	장재희	요안나
서대신	최은미	율리안나	광안	윤재필	이나시오
석포	유다희	엘리사벳	덕천	유현주	이레네
성가정	강대건	안드레아	토현	임효원	마리아
성가정	안유나	아네스	성가정	정유화	에스텔
성안	임보금	마리아	부곡	오수민	마리아
성안	임혜경	도미니카	수영	백승민	사도요한
수영	박기동	야곱	옥동	김미선	베로니카
수영	홍리아	세실리아	삼산	황지혜	에스텔

Diocese

Busan Youth Day

2022 교구 젊은이의 날 미사 전례곡 모음

01 입당성가 : 힘을 받아라

02 화답성가: 주님의 집에 가자할 제

03 봉헌성가 1 : 기쁘게, 찬미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시온2(생활성가편)] ep03 : 익투스

04 봉헌성가 2 : 나의 온 맘 다해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시온2(생활성가편)] ep01 : 소울브리지

05 봉헌성가 3 : 주여 나를 받으소서

06 성체성가 1 : 그리스도 찬가 [바.다.주] 20211121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 바오누리

07 성체성가 2 : 임마누엘

08 성체성가 3 : 주의 빵을 나누세

09 성시간 시작성가 : 주여 주 예수여

10 성시간 묵상 후 성가 : 나와 함께

11 성시간 성체 강복 전 성가 : 이 빵을 먹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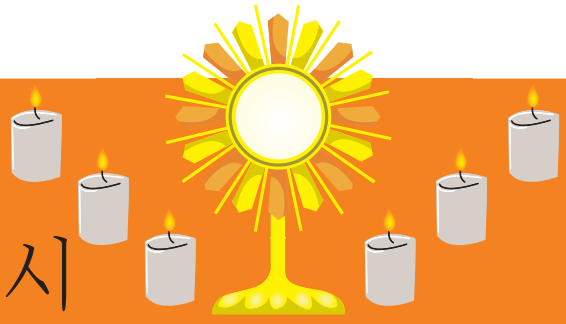
12 파견성가 : 젊은이여 일어나라

13 퇴장성가 : 축제



성가 연속 듣기 영상

젊은이의 날 미사와 성체현시



젊은이의 날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코로나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성당에 잘 모이지 않는데, 이러한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신앙을 표현하고, 믿음을 살아가도록 초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날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목표가 된 것은 젊은이들이 함께 미사를 봉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바쁜 일로, 공부로 또 시험으로 그리고 친구를 만나느라고 주일미사에 빠지게 될 일들이 많아지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본당의 미사에서 젊은이들은 실종(?)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일미사가 기계적이 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도 젊은이들이 주일미사에 오지 않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놓칠 수 없는 가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일들을 미사를 봉헌하면서 오늘 새롭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노래와 몸짓으로, 침묵과 기도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림은 우리의 성화와 구원에 도움이 되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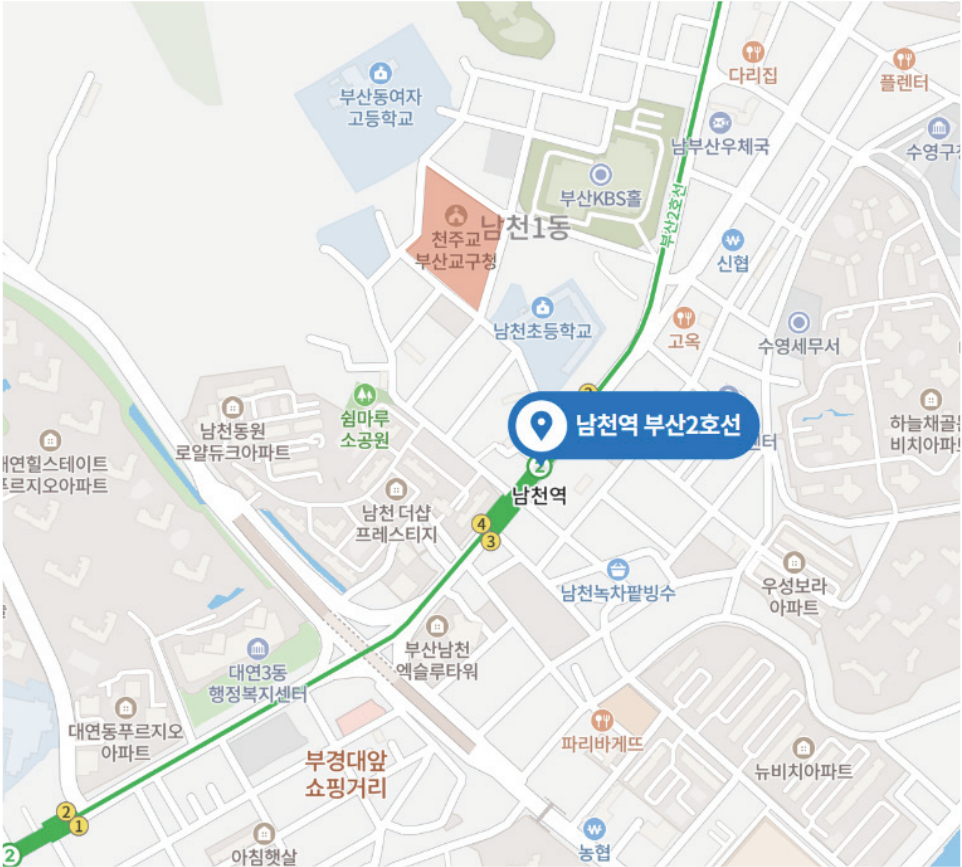
이제 본당의 미사에서 소수가 되어버린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미사를 봉헌하려고 합니다. 매주 소수의 인원이 힘겹게 준비하는 미사에서 '왜 나만?' 이라는 물음표에서 '우리 함께!'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 되길 바래 봅니다. 젊은이들이 다 함께 모이는 미사를 통해 각자의 본당에서 드리는 미사가 활발해지기를 청해봅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봉헌하는 미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젊은이들이 성체 앞에서 침묵하는 순간에는 하느님께서 젊은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교님과 사제단 그리고 젊은이들이 함께 드리는 미사는 교회가 드러나는 순간이며, 교회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이 미사에 함께 하셔서 하느님의 기쁨을 나누지 않을까요?

※ 영성체 후 자리에 앉아서 배부된 초 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길 교통 및 주차안내



1.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세버스, 대형버스 이용 시에는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3. 부산 지역 외 본당의 승합차나 승용차는 교구청 주차장, 푸른나무 주차장, 남천초등학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차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총 80 대).
4. 18:00 이후에는 남천성당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On Faith'

숏츠(SHORTS) 영상제

숏츠 영상이란, 몇 초 단위부터 2~3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말합니다.

대중들은 틈나는 대로 콘텐츠를 즐깁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직접적인 스토리 구성을 이루는 숏츠 영상은
대중들의 이러한 콘텐츠 문화를 적극 반영하며 대중들의 충분한 관심을 이끌어 냅니다.

ON FAITH



대 상 : 교구의 청소년과 청년 및 부모와 주일학교 교사 누구나
(개인 혹은 공동체로 참가 가능)

주 제 :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희망'

영상양식 : 주제를 표현하는 1분 내외의 자유 영상(가로,세로영상 모두 가능)

제 출 : cum1318@hanmail.net으로

영상 제목, 설명, 참가자 명단, 대표자 연락처와 함께

시 상 : 총 상금 300만원 / 10여개팀 시상
※시상규모와 시상팀수는 참가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마 감 : 10월 30일(주일)까지

문 의 : 청소년 사목국(051-629-8740)

숏츠영상제
상세 안내 및
예시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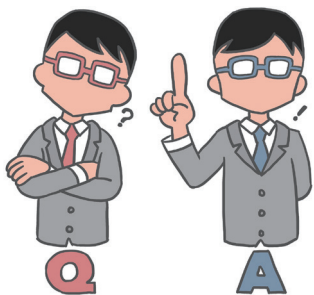
젊은이,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희망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 (Diocese Busan Youth Day, BYD)

요즘 신앙 "금쪽같은 젊은이"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베드로 3, 15)
 젊은이의 날을 준비하면서, 삶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가진 의문에 대해 주교님께서
 대답해 주려고 합니다. 아래의 SNS로 영상이나 글로 질문을 던져 주시면,
 주교님의 대답이 담긴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주교님~궁금해요!" 



질문 보내기



<https://docs.google.com/forms/d/1fs0ENR5swuM3NYTB-Aj7av2nQorJB1iNzxoll3uJqSE/edit>

주교님 답변 보기



청소년 사목국 Youtube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HUklDz0O8EhpBXRMAge0Zw>

무례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책 자주 읽으시나요? 혹시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시나요?



한국 가톨릭은 신부님-수녀님-신자 순으로 너무 수직적이어서 단점이 많은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ARS후원전화

060-700-7004 (한통화 10,000)

060-700-2340 (한통화 5,000)

cpbc Radio

부 산 FM101.1MHz
녹산(서부산) FM101.5MHz
울 산 FM93.7MHz



Android



ios APP

QR코드를 찍어서

'cpbc빵' 앱을 설치하시고
지역을 '부산'으로 선택해주세요.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 미사(2022년도)

양산지역 | 남양산성당- 매월 둘째 월요일 10시

울산지역 | 야음성당- 매월 둘째 화요일 10시

부산지역 | 우동성당- 매월 둘째 목요일 10시30분

후원계좌 부산 041-01-029607-1

부산 041-01-029607-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T.051-600-8800 | F.051-600-8818



2023.08.01-08.06

WYD

LISBON 2023

부산교구 참여자 모집

(2023.07.28 - 08.08)

모집인원

YOUTH(16세-35세) 35명

모집일정

2022.11.1 - 12.15
(예비모임: 2023년 1월부터 마지막주 토요일 18:00)

참가비

4,500,000원 (참여자 선발 확정 이후, 참가비 입금)

농협 936-01-110234 천주교 부산교구

*입금하실 때 입금명은 '이름+WYD'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난목WYD



참가신청

일정

입정 : 7월28일(금)-6월8일(화) 12일 : 포르투갈만 서류

날짜	일정
7	28(금) 부산 - 경유지 - 리스본
	29(토) 리스본 - 파티마
	30(일) 파티마
	31(월) 파티마
8	1(화) 파티마 - WYD 개막식 - 파티마
	2(수) 파티마 - 교리 교육, 젊은이 축제 - 파티마
	3(목) 파티마 - 교리 교육, 교황님 환영식 - 파티마
	4(금) 파티마 - 젊은이 축제, 십자가의 길 - 파티마
	5(토) 파티마 - 순례자 여정, 철야 기도
	6(일) 폐막식, 순례자 여정 - 파티마
	7(월) 파티마 - 리스본 - 경유지
	8(화) 경유지 - 부산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22-2023 년 제 37 차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

(2022 년 11 월 20 일 세계 젊은이의 날 , 2023 년 8 월 1-6 일 세계청년대회)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 (루카 1,39 참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이것이 파나마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 주제였습니다. 이 대회 이후에 , 우리는 ‘일어나라’ 고 하시는 하느님의 긴급한 요청으로 마음이 불타올라 새로운 목적지인 2023 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2020 년에 우리는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루카 7,14)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은 바오로 사도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네가 본 것의 증인으로 선택한다’ (사도 26,16 참조). 리스본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을 나아가는 동안 , 주님 탄생 예고를 듣고서 곧바로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난’ (루카 1,39 참조) 나자렛의 동정녀께서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의 공통점은 ‘일어나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을 의식하라고 말합니다. 이 뜻을 기억합시다 .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혹독한 경험으로 이미 시험을 받은 우리 인류 가족이 전쟁의 비극에 시달리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마리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 특히 당신과 같이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친밀함과 만남의 길을 보여 주십니다 .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가 내년 8 월에 리스본에서 하게 될 경험이 , 젊은이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 또한 온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보여 주리라고 저는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

마리아는 일어났다

마리아는 주님 탄생 예고를 듣고 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만 몰두할 수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오히려 마리아는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떠올렸습니다 . 마리아는 일어나 삶과 활기가 있는 세상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 천사가 전해 준 놀라운 말은 마리아의 계획들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 젊은 마리아는 꿈쩍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 바로 자신 안에 부활과 새 생명의 힘이신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 마리아는 , 살해되셨지만 살아 계시는 어린양을 자신 안에 이미 품고 있었습니다 . 마리아는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 하느님의 계획이 자기 삶을 위한 최고의 계획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 마리아는 하느님의 성전이 되고 , 순례하는 교회 , 봉사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는 교회 ,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의 표상이 됩니다 !

우리 삶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 , 곧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영적 기쁨 ,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빛의 폭발입니다 . 마리아는 다른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만남의 기쁨을 증언하려고 바로 길을 떠납니다 . 이는 주님 부활 이후에 첫 제자들을 서두르게 하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마태 28,8).

부활 이야기에서 우리는 종종 ‘깨우다’ 와 ‘일어나다’ 라는 두 단어를 봅니다 . 주님께서는 이 단어들로 , 빛을 향하여 밖으로 나가라고 그리고 우리의 닫힌 모든 문의 문지방을 넘어서도록 당신의 이끄심에 내맡기라고 우리를 다그치십니다 .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주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교 공동체인 우리도 빨리 일어나고 , 부활의 신비로 들어가며 ,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길을 따라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라고 요청받습니다”(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강론 , 2022년 6월 29일).

주님의 어머니께서는, 자신들을 바라보려고 거울 앞에 서 있거나 ‘관계망’에 얽매인 채로 있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약동하는 젊은이들의 모범이십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언제나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파스카의 여인이십니다. 영원한 탈출의 상태로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느님이신 위대한 타자를 향하여, 그리고 다른 이들, 곧 자기 형제 자매들과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처럼 특히 가장 큰 어려움에 놓인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 서둘러 길을 떠났다

밀라노의 암브로시오 성인은 루카 복음 주해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마리아는 서둘러 산악 지방을 향하여 떠났는데, “그 약속에 크게 기뻐하여 자신의 기쁨이 가져다준 열정으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으로 충만한 마리아가 높은 곳이 아닌 다른 어느 곳을 향해 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은총은 지체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서두른 것은 봉사하려는, 자신의 기쁨을 선포하려는, 성령의 은총에 주저하지 않고 응답하려는 열망의 표징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나이 많은 친척 엘리사벳의 어려움에 이끌렸습니다. 마리아는 지체하거나 무심한 채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보다는 다른 이들을 더욱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마리아의 삶에 열정을 불어넣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이는 어려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들을 나는 곧바로 떠올리는가? 아니면 관심과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가?” 당연히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들의 문제들에서부터, 여러분 공동체의 어려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에게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수녀님이 하고 있는 일은 바다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성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긴급한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는 신속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걱정해 주는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병든 이들이, 감옥에 갇힌 이들이, 난민들이 연민의 눈길을 필요로 하는지, 무관심의 벽을 뛰어넘는 형제자매의 방문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지닌 ‘서두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저 한 자리에만 머무르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일어나 가야 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전쟁, 강제 이주, 빈곤, 폭력, 기후 재난 상황의 여파로 많은 이들은 이렇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인가? 왜 나여야만 하는가? 왜 지금인가? 그러나 오히려 삶에서 진정으로 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86 항 참조)

나자렛의 젊은 여인의 서두름은 주님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아 그것을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고, 다시 말해 자신들이 체험한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다른 이들이 흘러넘치게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이들의 서두름입니다. 자신의 어려움보다는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우선할 수 있는 이들의 서두름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소셜 미디어의 ‘좋아요’에 안달복달하는 때에 자주 벌어지는 일처럼 다른 이들의 관심이나 인정을 받으려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젊은이의 모범이십니다. 마리아께서는 모든 ‘관계 맺음’에서 가장 참된 것, 바로 만남, 나눔, 사랑, 봉사에서 비롯되는 것을 찾아 떠나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주님 탄생 예고를 들으셨던 이래로, 당신의 친척을 만나러 처음 길을 떠나셨던 때 이래로, 당신의 자애로운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을 방문하시고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일을 결코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의 여정에 ‘살고 계시다’면, 그 여정은 우리 형제자매 모두의 마음으로 곧장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증언하는지 모릅니다! 마리아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발현과 특별한 은총으로 사람들을 방문하신 외딴곳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마리아께서 방문하지 않으신 곳은 이 지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돌봄으로 활동하십니다. 마리아께서는 백성들의 걱정과 어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성지나 성당이나 경당이 있는 곳 그 어디라도 그분의 많은 자녀가 모여듭니다. 온갖 대중 신심의 표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례, 축제, 기도, 가정에 성화상을 모시는 일,

신심의 다른 많은 행위는 주님의 어머니 그리고 서로 차례로 한 명씩 방문하는 그분 백성들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

건강한 서두름은 언제나 우리가 위를 향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게 합니다 . 반면 건강하지 못한 서두름도 있습니다 . 이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살아가게 또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합니다 . 헌신하거나 관심 두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쏟아붓지도 않는 것입니다 . 이는 그 어떤 참된 인격적 투자도 없이 살고 공부하며 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들의 서두름입니다 . 대인 관계에서 이러한 서두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곧 가정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경청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멈추는 일이 결코 없을 때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친구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리라고 기대하면서 , 친구들이 시련을 겪어 우리의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즉시 외면해 버릴 때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 사랑에 빠진 연인들조차 서로를 진정 알아가고 이해하려는 인내를 지닌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우리는 학교에서 , 일터에서 , 우리 일상의 다른 자리들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지닐 수 있습니다 . 일이 서둘러 이루어질 때에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쉽지 않습니다 . 그 일은 쓸모없고 맥 빠진 것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이는 잠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 “부지런한 이의 계획은 반드시 이익을 남기지만 조급한 자는 모두 궁핍만 겪게 된다” (잠언 21,5).

마리아가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의 집에 다다를 때에 경이로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하신 하느님의 기적과 같은 개입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 엘리사벳은 자기 이야기로 시작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지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자신의 젊은 친척과 그 태중의 아기를 환대하는 데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자 하였습니다 . 마리아의 인사를 듣자마자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 그러한 경탄과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참된 환대를 보일 때에 ,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중심에 둘 때에 일어납니다 . 우리는 이를 자캐오 이야기에서도 봅니다 . 루카 복음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봅니다 .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자캐오가 있던 곳]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 ‘자캐오야 , 얼른 내려오너라 .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 자캐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루카 19,5-6). 우리가운데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누구에게서도 결코 받아보지 못한 친밀함과 존중의 느낌 , 편견과 반감 없음 , 사랑의 눈길을 처음으로 받는 뜻밖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체험의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느끼며 그분을 더 잘 알고자 서두르게 하였습니다. 엘리사벳과 즈카르야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기꺼이 맞아들였습니다. 이 두 노인들에게서 환대의 의미를 배웁시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연장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기꺼이 맞아들였던 것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먼저 삶을 살아온 이들의 경험을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체적인 만남을 향하여, 우리 자신과는 다른 이들을 진정 받아들이기 위하여 서둘러 떠나야 하는 때입니다. 젊은 마리아와 나이 든 엘리사벳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세대 간, 사회 계층 간, 민족이나 다른 집단 간의 거리를 좁히고 심지어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해체되고 분열된 인류 가족 안에서 새로운 일치의 희망을 언제나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는 젊은이들이 기억을 보존할 수 있을 때에만, 노인들의 이야기와 꿈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에만 그러합니다. “지난 세기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이때에 유럽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2년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교황 담화).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면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양극화와 극단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바로 성인은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치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에페 2,13-14).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에 인류가 마주하는 도전들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에 그 응답을 품고 갑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나이 든 친척에게 가져간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구체적인 도움은 매우 값진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감실이신 동정녀의 태중에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와 같은 그러한 크나큰 기쁨과 만족으로 즈카르야의 집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산악 지방의 고을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저 당신의 존재만으로

한마디 말씀도 없이 당신의 첫 번째 ‘산상 설교’ 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침묵 가운데 하느님 자비를 믿는 가난한 이들과 온유한 이들의 참행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저의 메시지이자 교회에 맡겨진 위대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마다를 위한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당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계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 삶으로 기꺼이 맞아들이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과 자애로운 봉사를 깊이 상처 입은 인류에게 전하는 방법을 보여 주십니다.

모두 함께 리스본으로!

마리아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과 한 명의 젊은 여성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셨습니다. 이탈리아의 토니노 벨로 주교는 마리아께 이렇게 기도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마리아님, …… 저희는 당신께서 깊은 바다를 향해하도록 미리 정해지셨음을 잘 알고 있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해안선을 따라 항해해 주십사 청한다면 당신을 붙잡아 두고 싶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저희의 무너져 내린 마음의 해안에 가까이 계심을 보면서 저희도 당신처럼 드넓은 자유의 바다로 모험을 떠나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여인이신 마리아」 [Maria donna dei nostri giorni], 성 바오로 출판사, 치니셀로 발사모, 2012, 12-13).

제가 이번 3 개년의 첫 번째 담화에서 언급하였듯이, 15 세기와 16 세기에 많은 선교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젊은이가 특히 예수님 체험을 다른 민족들과 국가들과 함께 나누고자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길을 떠난 것은 바로 포르투갈에서였습니다 (2020 년 제 35 차 세계 젊은이의 날 교황 담화 참조). 20 세기의 초에 마리아께서는 그 땅을 특별히 방문하기로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파티마에서 회개와 참된 자유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사랑의 강력하고 찬란한 메시지들을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젊은이들의 위대한 대륙 횡단 순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순례는 내년 8 월에 리스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로 정점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가 전 세계의 개별 교회들에서 오는 11 월 20 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세계 젊은이의 날을 지낼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가 최근에 발표한 문서 「**개별 교회의 세계 젊은이의 날 거행을 위한 사목 지침서**」 (Pastoral Guidelines for the Celebration of World Youth Day in Particular Churches) 는 청년 사목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세계 젊은이의 날에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기쁨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가 끝나고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함께 리스본에서 민족들과 세대들이 형제로서 얼싸안는 기쁨, 화해와 평화로 얼싸안는 기쁨, 새로운 선교적 형제애로 얼싸안는 기쁨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노달리타스 방식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든 거짓된 경계를 버리고 ‘일어나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하는 여정의 기쁨을 불붙여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이 일어날 때입니다! 서둘러 일어납시다! 모든 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마리아께서 그러셨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갑시다! 여러분 삶의 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앞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실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미루어 두지 마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이 내딛는 걸음걸음을 강복합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2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프란치스코

부산가톨릭의료원은
생명사랑과 **인간존중**을
실천합니다.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MARYKNOLL HOSPITAL

대표전화 : 465-8801
진료예약 : 461-2201~4



부산가톨릭의료원
부산성모병원
BUSAN ST MARYS HOSPITAL

대표전화 : 933-7114
진료예약 : 933-7777